

해남군 명랑대첩축제 '2022 울돌묵 페스타' 성료

해남군과 진도군, 울돌묵 일원에서 열린 명랑대첩축제 '2022 울돌묵 페스타'가 사흘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가을축제의 재개를 알렸다.

특히 올해 축제는 코로나19이후 3년만에 대면행사로 치러지면서 관광객들의 높은 기대감속에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려 가을 축제의 진수를 만끽했다. 전라남도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명랑대첩축제에는 15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간 개막식을 비롯해 드론쇼, 트롯쇼 등 볼거리와 함께 명랑해상케이블카에서 야간 연장운행을 하고, 미디어아트와 조명을 이용한 설치작품 등이 조성되면서 늦은 밤시간까지 축제장을 찾은 행렬이 이어졌다.

첫째날인 9월 30일에는 개막행사로 해남 우수영 관광지에서 진도대교를 통과해 진도 녹진관광까지 이

어지는 해남군·진도군의 읍면민 출정 퍼레이드와 출정식, 미디어 해전과 드론쇼, 불꽃쇼가 울돌묵 해상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둘째날에서는 해남우수영관광지에서는 전국 청소년 가요제, K댄스대회, 명랑트롯 축하쇼 등이 펼쳐졌으며, 진도 녹진 광장에서는 온겨레강강술래 한마당 경연대회와 진도씻김굿, 남도 들노래 공연 등이 이어졌다.

축제는 일요일인 2일에도 계속돼 해상군악대 가을음악회를 비롯해 평화의 만가행진, 진도 북놀이 등 전통공연이 해남 우수영과 진도대교, 진도 녹진 관광지에서 다채롭게 열렸다.

이와함께 명랑 어린이 놀이터, 수군놀이 체험, 조선저장거리 체험, 수군재건 스텝프렐리, 어린이 마술공연 등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돼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윤규진 기자



해남군과 진도군, 울돌묵 일원에서 열린 명랑대첩축제 '2022 울돌묵 페스타'가 사흘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가을축제의 재개를 알렸다. /해남군 제공

장흥군 정남진천문과학관 행성관측 관람객 방문 독려

장흥군 정남진천문과학관에서 올해 가을철이 태양계 행성관측의 최적기라고 밝히며 관람객들의 방문을 독려하고 나섰다.

청명한 가을철 밤에는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큰 행성인 목성과 두 번째로 큰 행성인 토성을 10월~11월중에 천체망원경으로 관측해 볼 수 있다. 특히 목성은 12년의 주기로 태양을 공전하는데 올해가 지구와 목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해다.

이때의 거리는 약 3.95AU(5억9천만km)정도로 1951년 이후 70년 만에 가장 가까워져서 평소보다 더 크고 밝게 관측해 볼 수 있다.*1AU=1억5천만km(태양과 지구의 거리)

목성이 올해보다 더 가까워지는 시기는 107년 후인 2129년이라서 이번 목성근접은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다.

또한 토성도 관측해 볼 수 있다. 토성은 우리 태양계 행성 중 6번째 행성으로 목성보다는 먼 거리인 9.16AU(13억7천km)이지만 정남진천문과학관의 800mm 주망원경으로 관측하면 선명한 토성의 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김정근 기자

보성군, 내년 현안 국비 확보 마무리 사활

보성군이 정부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해 국회 의결시까지 국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국비 확보 사업은 전남도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에 중점을 모으고 전남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비사업 예산 반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보성군은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별고갯벌 복원사업(70억 원) 및 △용산 장수 농어촌 하수도 정비(46억 원)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지역 현황, 필요성을 구조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국비 확보 목표사업은 8개 사업 3,051억 원으로 △환경분야 보성관로정비 2단계(105억 원), 회천지구 관로정비(123억 원), 용산-장수 농어촌하수도 정비(46억 원), 군농-연천 농어촌 하수도정비(52

억 원), 청암-비봉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55억 원) 등이다.

△해양수산분야는 별고 갯벌 복원(70억 원), 해양갯벌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탐방로 조성 등(100억 원), 여자만 국립갯벌 해양정원 조성(2천500억 원)이다.

전남도와 협력해 추진할 임성-보성간 철도 개선사업비(354억 원)는 2023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역을 요구하고,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비 1천84억 원이 국회에서 전역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철우 군수는 "여자만 국립갯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보성군의 주관 사업으로 여주시, 순천시, 고흥군과 연계해 있는 여자만 보존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도 강조하며 사활을 건 2023년 국비 확보를 위해 전 부서장들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사업비가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성 기자

진도 남도진성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관광객에게 새로운 체험거리 제공 기대

진도군이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도 남도진성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진도군-전남정보

문화산업진흥원-(주)스마트큐브 3자간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전남 최초로 지역특화 콘텐츠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개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즐기는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해 색다른 실감 체험형 메타버스를 선보이게

될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진도 남도진성은 관광객들에게 첨단기술로 만든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진도의 대표 관광지로서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대몽항쟁 유적지 남도진성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전남형 특화 콘텐츠로 개발해 진도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완도, 숙박비 할인 이벤트 참여 업소 모집

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숙박업소를 14일까지 모집한다.

군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숙박업소가 모집되면 군 누리집을 통해 업소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용객은 사전 신청서를 군에 제출한 후 숙박업

소를 이용할 수 있다.

관광객은 10만 원 이상 숙박료가 발생하면 4만 원,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원 미만은 2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한 숙박업소에서는 할인 금액을 완도군에 청구(청구서, 숙박확인서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이 가능한 업소는 사업

자등록을 완료한 5개 업종(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숙박업, 농어촌 민박)으로 세무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업소이다.

보상금 지원 신청은 신청서와 공시 가격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완도군 관광과, 읍면 총무팀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550-5409)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백나영 기자

고흥군, 매직컬 공연 성황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군립 중앙도서관에서 군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일환으로 가족형 환타지 매직컬 공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아이들과 지역민의 문화 예술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이다.

이날 공연은 '마법전사 매직킹'을 주제로 마술과 LED퍼포먼스, 마술 배우기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마술을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문석 기자

생명의 땅 강진 하늘과 바다와 강, 들이 만나는 강진 강진에서 나오는 귀한 농수산물들을 드셔 보세요.

강진군과 초록믿음이 추천하는 강진 건강10대 농식품

지주식김

쌀귀리

딸기

여주

녹차

토마토

전통장류

토하젓

황칠

연근

강진군은 3가지를 약속합니다

- 01 신선**
▶ 청정지역 강진에서 직접 생산
- 02 신속**
▶ 농업인 직접 택배발송
- 03 신뢰**
▶ 강진군

믿고 먹을 수 있는 맛! 착한 가격!

강진군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
http://www.gangjin.center